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6월 1일(금)

(음력 4월 18일)

Пятница

1 июня 2018 г.

№ 21(11678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일은 러시아에서 어린이보호의 날을 기념한다.
이날 많은 문화기관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 행사들은 가가린 휴식공원, 여러 문화회관, 도서관들과 박물관 등에서 개최된다.
시 공원에는 12시부터 다양한 오락프로그램과 공연, 주향토박물관에는 크вест트를 비롯한 여러 활동교실, 주미술 박물관에서는 그림그리기 활동교실이 진행된다.
사할린 법에 따라 이날 매점(레스토랑, 카페, 바 등 제외)들에서 알코올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예식 기자 촬영)

1949년 6월 1일 새고려신문 창간

새고려신문은 사할린 한인사회문화계의 보물

존경하는 사할린 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인터넷 새고려신문을 애독하시는 독자 여러분!
존경하는 본사 사원 여러분!
러시아 연방에서 한글로 발간되는 유일한 한민족지 창간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주 금요일 새고려신문을 발행하여 사할린 독자들에게 배달하고, 신문은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배 워토리아 사장을 비롯한 본사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고려신문은 사할린 한인사회문화계의 보물입니다. 69년 동안 한민족의 문화, 한글을 유지, 계승하는 새고려신문은 대견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본 신문이 창간 70주년-고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할린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에서도 우리 신문 외에 오랫동안 발행해온 민족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문이 장수를 누리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듭 한민족지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리며 본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본사 사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경의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김포 신도시에서
안춘태, 새고려신문사 전 사장,
러시아연방 문화공훈자.

단신

새고려신문, 한국방문 체험수기 수상자 발표

새고려신문사 주최 아래 진행된 <한국방문 체험수기>의 수상자 발표·시상식이 6월 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있을 예정이다. 콩쿠르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 방문에 대한 작품을 제출해야 했다.

콩쿠르 우수상에 곽 올라와 김수란, 장려상에 전채련과 임복희가 수상했다. 본 신문 3면에 첫 수상작을 소개한다.

사할린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 100주년 기념

5월 28일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날'이다. 올해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100주년을 기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국경수비대 군인들과 원로들이 국경수비대 소공원에 모여 집회를 열고 군인 위령비에 헌화를 했다.

체호브센터에서 열린 러시아 연방 보안국 국경수비대 100주년 기념행사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그는 "우리 국경수비대는 용감하고 책임있는 사람, 주어진 책무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6월 6일 난방 공급 마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는 도시 난방시즌이 6월 6일로 끝난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유즈노사할린스크 남부 주택단지들부터 난방 공급이 끊어지고 이와 함께 일부 단지들에서는 온수 공급도 끊어진다.

난방공급 마감일은 평균 바깥 온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뵈체고르스크 지진 희생자 추념

1995년 5월 28일 밤 1시경 사할린 북부 뵈체고르스크 마을 주민 총 3197명 중 2040명이 순식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사망했다.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고 5층 주택 17동을 비롯해 여러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괴되어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마을이 사라져버린 엄청난 비극이었다.



지진 피해에서 생존한 일부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대륙으로 떠나거나, 일부는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살고 있다.

지난 28일(월)유즈노사할린스크시 뵈체고르스크 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념식에 유가족, 구조대원, 사회활동가와 정부 대표들이 모여 침묵 가운데 지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해마다 진행되는 추념식에서 뵈체고르스크의 비극은 영원히 아물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취재: 이예식기자)

사할린지역 가스화에 약 150억 루블리 투자 계획

지난 30일(수) 사할린 주정부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가스프롬>공개주식회사 알레리 골루베브 경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2018년 사할린 주내 가스화 작업 관련 계획을 동기화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6-2020년간 가스화 프로그램에 따라 2018-2020년에 <가스프롬>은 45억 루블리, 사할린 주는 약 100억 루블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1만 주택에 가스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할린 주의 가스화 비율은 36%에 해당하는데 이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편이다. 18%를 더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실무그룹이 결성되었고 전문가들은 문제점들을 밝히고 해결하는 중이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2020년까지는 실제 지표가 60%에 도달하도록 "유즈나야" 가스분배소 운영 실시와 코르사코프 지역의 기획 시행을 도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고려신문

2018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5월 21일 사할린인문기 술대학에서 있는 <사할린 한인: 회고와 전망>란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최경옥 한국 법학박사가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 사할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최경옥** 교수와 일문일답하였다.

- 우선 선생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적 연구를 하시고 법학박사이신데 박사님의 원래 전공과 연구 분야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경남 양산에 있는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전공은 헌법이고, 일본 동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최근에는 다문화 분야와 이주자들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주사회통합연구소(소장 최윤철 교수)팀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번에 진행된 학술회에서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사할린 한인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이 문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2012년경에 우연히 <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아인 역사 21 (2011년)> (재일 코리아 변호사협회 편저.박인동 씨가 옮김) 책에서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고향에 돌아갈 날은 언제인가?'하는 부분을 읽게 되었고, 그중에서 박노학이란 분이 사할린에서 돌아오지 못한 잔류한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한국 학자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중국적도 인정 한국 영산대학교 최경옥 교수와의 인터뷰



지지 못한 사이에 일본학자(대표적으로 大沼保昭; 오오누마 야수아키)와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1980년대 말부터 연구를 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소송도 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 책들을 보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한국에도 알리고, 역사에도 학문적으로나마 기록을 남겨놓기 위하여 논문을 쓰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관련 연구자로서 현지에 직접 한번 와서 보고 사할린 한인들의 현재의 모습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지요?

- 이번 사할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으로 돌아올 권리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사할린 한인이 제2차대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으며,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현재 한국에서의 국적법 관련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사할린 동포와 관련 연구 발표는 많이 하셨는지요? 연구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최근에는 <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하여>(2012), <중국 동포와 한국국적 취득의 문제점>(2014),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사할린/중국 등을 중심으로->, (2016)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8) 등 연구논문을 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러시아 현지 자료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이를 이해할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지 한인들과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여 할 수 있으면 좀 더 깊이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선생님의 견해로 사할린 한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지요?

-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문제이기도 하나, 이제 벌써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2세부터 4세까지 정도인데,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상을 하여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이중국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영주귀국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 후손들도 한국국적으로 자동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 사할린에 처음 오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사할린에 도착하기 전에 참으로 많이 설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사할린 하늘을 찍어보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서야 사할린 한인들을 대할 수 있을까 등등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나마 우리 한인들이 제자리들을 잘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있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한인들의 공동묘지에 가서 한글로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고국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추측해 가슴을 적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고려신문,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등을 견학하면서 여전히 여기에서도 우리말, 우리글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창하여 이와 같은 노력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얼을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할린 한인센터가 일본 적십자의 도움으로 일본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희망해보면서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도착할 때부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와 주시고 가까이 이를 동안이나 망향의 언덕인 코트사코브 항구, 27인 한인 추념비 등 사할린 가이드를 맡아주신 주 한인회 박옥순 회장님, 한인들의 공동묘지 안내를 해주

신 김흥지 주 노인회 회장님, 세미나를 하는 날에는 우리말 통역까지 기꺼이 해주신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김춘자 국장님, 사회통역 등을 맡아주신 새고려신문 사 배 워토리아 사장님,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신 사할린인문기 술대학 총장님/부총장님등 한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러시아인으로 사할린 한인 연구를 하시면서 발표를 맡아주신 쿠진 교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사할린에 가고 역할을 맡아주신 한국 인하대학교의 박봉수 박사님과 김영순 교수님, 끝으로 사할린 연구자로 사할린 현지에 한번 가고 싶다는 이러한 저의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연구팀(SSK 한국연구재단 후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책임자 최윤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친목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사할린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께서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에 교민들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인상은 더욱더 저를 이 문제에 매진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수많은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 사할린 연구와 관련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 사할린 한인들 1세대 그 후손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연구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을 해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을 '노르딕 걷기' 릴레이 경주에 초대

'노년 세대' 기획의 일환으로 6월 2일 토요일에 <적극적 활동>보건체육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웬스카야 거리 5번지에 있는 올림픽선수양성 특수 청소년 동계스포츠학교 구역 내에서 11시에 개최된다.

활동은 콘서트 프로그램과 플래시몹 (참가자들의 합동체조)으로 시작되고 이후 노르딕 걷기 릴레이 경주를 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르딕 걷기용 스틱은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대여한다.

행사장에서는 사할린주 건강검진센터의 전문 의료진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고혈압, 안압을 측정해 주고, 산소맥박측정, 체중에 따른 지표를 알려주며, 뇌졸중 증상,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험, 측정해 준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 청년주도센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체육스포츠부, 시립 "스포츠 도시", 올림픽선수양성 특수 청소년동계스포츠학교, 국립 "사할린주 건강검진센터"가 주최로 나섰다.

주최 측은 행사에 참가할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가장 적극적이고, 어린 참가자들에게는 달콤한 제과류를 선물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эстафете по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субботу — 2 июня — пройдет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Ак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нется в 11.00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ДЮСШО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Венская, 5.

Начнется акция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и флешмобом —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зарядкой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а после будет дан старт эстафете по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е. Причем палки для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ы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участникам напрокат на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площадк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Они будут измерять артери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глазное давление,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йти пульсоксиметрию, узнать свой индекс массы тела, провес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вероятность инсульта и на вероятность развития заболеваний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выступили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управление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БУ "Спортивный город", СДЮСШО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ГБУЗ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маленьких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ждут награды и сладкие подарки.

사할린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남성 사망률 여성 사망률보다 4.3 배 높다

2017년 한 해 사할린 주에 사망자수가 5879명이 기록되었는데 그중에서 28.5%가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다. 2016년에 비해 근로 능력자의 사망률은 3%로 감소한 편이다.

사망률에는 뚜렷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사망자들 중 대부분이 남성으로 81.3%를 차지해 여성 사망률보다 4.3배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간 근로 능력자 연령대에서 구조적 사망의 원인으로는 사고로 인한 부상, 외부 폭력으로 인한 외상이 1위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폭력 외상은 실제적으로 남성 사망원인의 3분의 1을 차지, 여성의 경

우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망원인이다. 교통사고, 알콜중독, 자살, 살해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로 능력자 연령대의 치명적 사망 요인 중 사고, 중독, 외상은 32.9% (2016년에는 28.5%)에 달했고 이중에 교통사고는 4.9%, 살해는 2.1%, 알콜중독은 8.1%, 자살은 1.9%로 나타났다.

두번째 사망 원인은 혈액 순환계 질환으로 19.4% (2016년에 28.6% 달함)이고 세번째는 신중 감염병으로 14.3%를 차지 (2016년 13.1%)

소화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네번째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인으로 인해 근로 능력자 연령대의 사망률은 2016년에는 13.2% 인데 비해 14%에 달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мужская смертность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выше женской в 4,3 раза

За 2017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5879 человек умерших, из них 28,5% —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6 годом смер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снизилась на 3%.

Сохраняется четкая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смертности полов.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умерших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жского пола — 81,3%, т.е. уровень мужской смертности в 4,3 раза выше уровня женской.

В структуре причин смерти лиц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2017 году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редотвратимые причины — за счет смертности от травм, отравлений и последствий внешних причин.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травмы являются причинами смерти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ого третьего мужчины и каждой четвертой женщины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высокой доля смертности по причинам транспортных травм, случайных отравлений алкоголем, самоубийств и убийств.

(8면에 계속)

사할린한국교육원, 수료식 개최

2017년 9월부터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수업과정이 겨울방학을 거쳐 2018년 2월에 이어 5월 말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28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료식은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의 인사말씀, 학사보고, 강사들에게 감사장 수여식, 수강생들의 공연, 로또 추천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한국어 초급반, 중급반, 한자반, 예절반, 주부반 등 수강생들이 한국 노래, 시 낭송, K-팝 춤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교육과정을 총괄한 김주환 원장을 비롯해 임 엘위라·코르네예와 인나·권건자·박혜신·정혜진 강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학기 초에 200여명이 수강을 시작했지만 출석 70% 이상 이룬 수강생 133명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교육과정은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기자)

한국방문 체험수기 장려상

그 은혜를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겁니다

2016년 10월에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적십자 병원의 초청 검진을 받았습니다. 사할린으로 돌아와 검진 결과를 기다렸는데 12월에 검진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6월 8일에는 연로하신 1세 어르신들 26명과 보호자로 딸과 손자들 16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진료받기 위해 아시아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 떠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만족한 얼굴에 기본도 좋아보였습니다.

도착한 첫날 호텔 '프레지던트'모짜르트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초청진료로 고국을 방문한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를 위한 환영회를 시작하여 한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 원장님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요한 이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이번에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우리 1세 노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제 옆 좌석에 앉아 계시던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달래주셔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나의 조국으로 오니 얼마나 따뜻하고 정다운가, 병이 빨리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따뜻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는 홍삼차를 준비해 모두에게 나누어주셨지요.

다음날 버스를 타고 서울 중앙국제의료원에 가서 각자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병실, 무료로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환자복도 매일 깨끗이 갈아주시니 휴양소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병실에 2명의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 편 눈 수술을 잘 받아 만족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께서서는 제게 침도 놓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지요. 병원의 모든 의료기기들은 현대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술을 보고 참 자랑스러웠고 전과 비교해 많이 발달되어 무척 놀랐습니다. 가끔 모임에서는 달콤한 찰떡과 주스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안명옥 원장님과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과 직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 환자들을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님과 노인회 김홍지 회장님과 또 이산가족회의 박경춘 씨의 덕분에 사할린 한인 1세 노인들은 대한민국 서울중앙국제의료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오래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옥체만강하시고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한인 1세 노인 전채련(1931년 생) 올림

제9회 전국 사할린 동포 한마음 대회

사랑과 나눔의 음성품바와 사할린 동포의 만남

대한민국 충북 음성군은 지난 5월 23일(수) 음성읍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사할린 동포 600여 명과 지역 주민 및 봉사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전국 사할린 동포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주최와 음성군의 후원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 행사도 전국에 흩어져 평소 왕래가 적은 사할린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가졌다.

전국 사할린 동포 한마음대회는 전통적으로 음성품바축제와 병행하여 진행됐다. 남궁철주 품바 각설이가 대회 개최식 전에 먼저 나와서 재치있는 말로 사할린 동포들에게 환한 웃음을 찾아주었다. 자식들을 러시아에 두고 영주귀국한 사할린 노인들에게 <... 자식들도 영주귀국 시켜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70년 긴 세월을 사할린 동포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대한민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따듯이 포용해줘야 한다.>고 하여 남궁철주 품바 각설이는 사할린 동포들의 절찬을 받았다.

남궁철주 씨는 30년 동안 품바 각설이 봉사를 하고 있다. 낮에는 품바, 밤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한다.

대회 제1부 개최식에서 고근석 부군수(음성군수 권한대행), 윤창규 음성군 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서정대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음성을 찾아온 사할린 동포들을 따듯이 환영했다. 윤창규 음성군 의장은 "음성 품바축제가 오랜 세월 타국에서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고국의 정과 사랑도 듬뿍 느껴보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음성읍 사할린동포회 회장 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할린봉사회 주훈춘 회장,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음성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 회장은 "저희들은 과거 역사의 희생자로서 러시아에서 살다가 한국 정부에 의해 모국으로 영주귀국하여 근심·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450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할린 동포들이 음성에서 만나 정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대한 봄 축제를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의 발전과 번영을 사할린 동포들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사)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 이광용 회장이 사회를 맡아 한마음 행사 제2부는 윤민자 사할린 동포 초대가수, 음성 김단아, 방대한 초대가수, 아름드리 봉사단의 부채춤, 음성보건소 실버 태권도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다. 가수들의 열창과 장기자랑하는 참가자들의 노랫소리에 노인들은 춤도 추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명랑 게임도 신나게 했다. 노래자랑에서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거주하는 김경자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봉사원들은 아침에 음성에 도착한 사할린 동포들에게 푸짐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대회가 마무리되자 귀갓길에 나선 모두에게 간식까지 챙겨주었다. 수고를 많이 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음성군 등 한마음대회 주최 측에 사할린 동포들은 무척 고마워했다.

대한민국 김포 신도사에서 안춘대

카자흐스탄 고령극장, 알마티 중심가에 새 보금자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새 건물 제공 받아... 5월 23일 자축행사 가져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령극장(극장장 니 류보피)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새 극장건물을 제공 받았다.

새로 극장이 들어설 건물은 알마티 시내 중심 시힐리나 거리와 바젠바이바트라 거리가 교차로 근처에 500석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이다.

2002년 알마티 외곽에 있는 건물을 내렸던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통문제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고려인 동포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이번에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 건물을 제공하게 됐고 이사는 6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5월 23일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이전을 자축하는 의미로 새 극장에서 자축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승민 주말마티총영사와 니 류보피 고령극장장을 비롯해 유가이 세르게이 고려인협회장 등 고려인 동포단체들이 참석했다.

고령극장 단원들의 대북 연주로 시작된 축하연에서 니 류보피 고령극장장은 "알마티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동포들이 자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던 현재의 고령극장 대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새로운 극장 건물을 받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고령극장이 카자흐스탄의 문화발전과 고려인 동포사회내 민족문화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민 총영사는 "고령극장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동포들의 사랑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마련해 준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 카자흐스탄의 다문화지원정책, 소수민족정책이야말로 세계 9위의 광활한 국토면적을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이 당당한 독립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가이 세르게이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다"면서 "이 건물에서 고령극장이 우리문화를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고령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창단돼 5년 뒤 중앙아시아 크즐 오르다시로 옮겨온 뒤 1968년 공화국음악코미디극장의 지위를 얻고 알마티로 이전했다. 독립된 건물 없이 활동해 오던 고령극장은 동포지도자들의 청원으로 2002년 알마티시 외곽의 극장건물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제공 받았으나 교통 사정 불편한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동포들이 애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제기돼 왔었다.

곧 이삿짐이 옮겨질 건물은 규모가 더 클 뿐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함으로써 동포사회의 새 문화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극단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민족 공연단체이며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경비로 일하며 말년을 보낸 곳을 알려져 있다. 고령극장은 그가 타계하기 전 해인 1942년 태장춘이 희곡을 쓴 연극 '홍범도'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ХАРБИНЦЫ КАК САХАЛИНЦЫ

Техникум мех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сетила группа кита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четвертый месяц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 том, какие професси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техникуме, как проходит обучение и чем отличается обычный класс от лабораторных и мастерских, китайские студенты узнали не только в теории,



но и на практике. Второкурсник техникума Антон Мельников с готовностью показывал гостям на компьютерных тренажерах и на реальных моделях тракторов, как управлят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ой. Вместе с этим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оказались интересными и сокращенные названия машин: ГАЗ, УАЗ, КАМАЗ. «Не всегда, — делятся иностранцы, в словарях или в учебниках можно быстро найти точные расшифровки этих слов, а в общении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се оказывается легким и интересным».

Вслед з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Владимиром Юдиным китайским студентам пришлось повторять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электромонтаж», «трехфазный», «электронасос» и даже «реле». А в общении со старшим мастером Сергеем Никитенко получилось узнать о «сеялке», «картофелесажалке» и об «оборотном плуге».

При встрече гостей проявил себя и студент второго курса Никита Кузин, который получает в техникуме профессию электромонтера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Юноша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показал на компьютере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 различных режимов электрических реле.

Завершилась экскурсия чаепитием с блинами и обменом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осещ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о время чаепития протоиерей Виктор (Горбач) кратко рассказал об отмечаемом в мае Дне славян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культуры.

Уже в июне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вернутся к себе на родину, где продолжают заниматься славистикой в Харбинс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А пока, как говорит магистрант Лю Ху,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харбинцы занимаютс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вместе со студентами из Пусана,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училось выучить корейские слова «здравствуйте» и «до свидания».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мех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Послевоенный гражданский статус корейцев, колонизированных Японие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лен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троспектива и перспектива», май 2018 г.)

А.Т. Кузи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личаются большим многообразием и во многом связаны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миграциями, к числу которых относится и массовое корейское переселение.

Для понимания проблемы следует ответить на такие вопросы.

1. Когда завозились корейцы на колонизированный Японией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почему после войны они не были возвращены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2. Как проходила эволюция правового статуса корейцев: от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через образ «совет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российскому гражданству?

По данным сове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сле войны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осталось проживать примерно 360 тыс. японцев и 23,5 тыс. корейце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Все они получили времен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на япон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с правом пропис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Осенью 1946 г.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им соглашением началась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ских военнопленных и, в добровольном порядке,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числа японцев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Но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щ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не решался. И не потому, что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намеревала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цев в качеств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для работы в народном хозяйстве, как это преподается в некотор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Главенствова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факторы. Во-перв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установился американский оккупационный режим и одного желания СССР вернуть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было недостаточно. Во-вторых, оставленны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ы юридически являлись японскими подданными 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е мог их отправлять без санкции ООН. В-третьих,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еневская Конвенция «О защите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 время войны» запрещала державе-победительнице изменять гражданское состояние «покровительствуемых лиц», лишая их прежней гражданской правоспособности, зачислять в какие-либо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Женевские конвенции от 12 августа 1949 г.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токолы к ним*).

Последующий этап был связан с подписанием Сан-Францисского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1951 г.),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ил послево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но оставил без внимания судьб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я войны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т. 5.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Более того, власти Японии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лишил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воего подданства («*Политика Японии и проблема корейцев, оставленных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х после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пределялос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ССР как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Запрещались свободное перемещение и свободный выбор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Ограничивались сферы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не выплачивали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особия многодетным и одиноким матерям, а также в случае инвалидности и потери кормильца. Действовал специальный порядок частичного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й по болезни, в связи с выходом на пенсию по старости. Страхование жизни не проводилось. Существовал запрет на учебу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в институтах и техникумах. Лица, которые уклонялись от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езного труда и занимались бродяжничеством,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ялись на западное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За самовольное оставление места работы следовала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Действовали ограничения при обмене почтовой корреспонденцией. Запрещались любые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Как иностранцы, корейцы не несли воинской повинности. При этом ни одно иностран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было не вправе оказывать корейцам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защиту.

И все же корейцы не были интернированы, проживали со своими семьями. В отношении их слагались все недоимки по налогам и сборам, начисленным по японск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Выплачивались средства по вкладам в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и советских банках и сберкассах. Заключались трудовые договоры для работы на совет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ступающим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и рыбооловецкие артели выдавались льготные кредиты на хозяйств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Корейцы не облагались никакими другими пошлинами, сборами и налогами, кроме тех, которые взимались с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Открывались национальные школы и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е перемены наступили в мае 1952 г., когд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 приеме в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корейцев-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ГИАСО.Ф.242*), положив тем самым конец их правово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Процесс этот переживал подъемы и спады. Тому были и объективные причины. Во-первых, начиная с 1954 г., корейцам, в том числе и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был разрешен выезд в КНДР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и они 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Во-вторых, многие воздерживались от оформл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полагая, что э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затруднит им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в южную Корею.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блюдались выход из гражданства СССР и принятие гражданства КНДР.

В 1956 г. оставшимся после войны корейцам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заменять в видах на жительство японские фамилии н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ГИАСО.Ф.53*), вступать в профсоюзы и в комсомол, создавать землячества и клубы по интересам. Но прежде, во исполнение директив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звернулась работа по проверке погранично-паспортного режима. Усиливался контроль з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и проживанием иностранных подданных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Удалению из вольнонаемного состава воинских гарнизонов подлежали уборщицы, кочегары, парикмахеры, фотографы и другие, не имеющие совет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 пределах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устанавливалась береговая пограничная полоса с постановкой специального штампа в паспортах у жителей этих местностей. Не имеющие гражданства СССР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ереселялись в северны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Обяза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одлежали все радиоприемники с оплатой з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 началу 1970-х г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ло примерно 35 тыс. корейцев, из них около 8 тыс. являлись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Кузин А.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тали усиливаться настроения с ориентацией на выезд в южную Корею. Но поскольку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этой страной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то все ходатайства оставались без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пять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общим составом 40 человек, не пожелавших оставать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выдворены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зин А.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но н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где они проживали до войны, 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объявила о планах глобализации

Юж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искать пути расшир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с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ей,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ами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НГ)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глобаль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оп культуры, заяви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зарубежным культурным обменам.

После встреч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экспертами служба по культуре и информации Кореи (KOCIS)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Сеуле объявила о плана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по миру корейской поп культуры "hallyu".

Юж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отмечать насыщенными культур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ряд значимых годовщин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АСЕАН, такие как 70-я годовщин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Филиппинами в 2019 году, 60-летие с Малайзией в 2020 году и 30-летие с Вьетнамом в 2022 год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 всем мире действуют 32 зарубежных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KOCIS планирует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и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Кореи в Индонезии и Малайзии.

Касаясь России и региона СНГ, усилия Южной Кореи будут сфокусированы на активизаци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и расширени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 одного в России и другого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построит "до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в Ташкенте и проведет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Прочувствуй Корею" в Москве дл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россиянам по случаю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Были беспокойства в том, что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может быть недолговечной, полагаясь лишь на такие жанры, как К-поп»,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KOCIS Ким Тхэ Хун. -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налаживать больше обменов с народам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России и СНГ, чтобы сделать феномен устойчивым». Поскольку все больше поклонников интересуются hallyu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удет оказано больше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м курсам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ститутах имени короля Седжон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щающих институты, увеличится с нынешних 60 000 до 90 000 к 2022 году. Для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в институты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больше лицензирован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KOCIS направит 10,4 миллиарда вон (US\$9,7 миллиона) в создание компьютерной системы по сбору данных по hallyu.

Система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выработки стратегий для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путем анализа реакции населения 10 стран на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скусство, контент и туризм.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ит поддержку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большего внимания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на буме корейской поп культуры.

(ИА РУСКОР)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физике высоких энергий

С 4 по 11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физике высоких энергий (ICHEP).

Это самая престижн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области физики элементарных частиц.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300 ведущих теоретиков и экспериментаторов из 55 стран мир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1.100 докладов на тему ядерной физики, физики элементарных частиц и астрофизики.

Около 30 учёных выступят с лекциями на данную тему. В их числе лауреат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по физике 1976 года Сэмюэл Тинг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космолог Майкл Тёрнер, впервые употребивший термин «тёмная материя».

Перв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физике высоких энергий состоялась в 1950 г. в Рочестере штата Нью-Йорк. С 1960 год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ходят раз в два года.

(RKI)

Дороги ведут в Сингапур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встретились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Оказавшийся под угрозой срыв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бросился спас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Только вернувшись из Вашингтона, в субботу он неожиданн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В воскресенье Мун огласил результаты переговоров с Кимом, подтвердив, что лидер Страны чучхе по-прежнему настроен на встречу с Трампом, а также в итоге готов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удя по реакции в Вашингтоне, историческая встреча Кима и Трампа имеет все шансы, чтобы пройти, как и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самом начале -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Когда в четверг 24 мая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аписал открыт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письмо Ким Чен Ыну, фактически обвинив КНДР в срыве саммита и официально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й встречи в Сингапуре, то казалось, что все уже кончено и титанические усилия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пошли прахом. В Сеуле не скрывали, что шокированы и разочарованы, однако,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Мун оказался не из тех людей, кто сидит сложа руки.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только тогда вернулся из Вашингтона, заявления Трампа стали фактически оплеухой, но он немедленно бросился спасать ситуацию.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позже, в КНДР тоже были озадачены поведение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лидера, а потому Ким Чен Ын в пятницу вечером 25 мая позвонил по каналу прямой связи Мун Чжэ Ину, попросив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чего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хотят в США.

Как рассказал в воскресень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в пуб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к нации, Ким Чен Ын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немедленно очередную личную встречу "без формальностей". Легкий на подъем Мун немедленно согласился, и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 обстановке полной секретности, к местечку Пханмунчжом из Пхеньяна и Сеула проследовали два кортежа. В одном был Ким Чен Ын, а в другом - Мун Чжэ Ин. Трудно сказать о подробностях прибытия Кима, но про Муна известно, что во всю ситуацию был посвящен очень узкий круг лиц. А чтобы не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енужные слухи и сохранить все в тайне, Мун даже сменил машину, выехав на запасном лимузине, который не особо известен публике.

В результате менее чем месяц спустя посл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27 апреля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прошла повторн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Юга и Севера, правда на этот раз она состоялась уже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в "Доме объединения". Судя п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фотографиям и видео, Мун и Ким бы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ды видеть друг друга. Ким долго жал руку Муну, они много улыбались, а потом в течение двух часов про-



Судя по снимкам,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бы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ды видеть друг друга. Фото: REUTERS

шли переговоры, где помимо самих лидер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еще два человека - директ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и Со Хун и начальник Фро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НДР Ким Ён Чхоль.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готов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о хочет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ле беседы оба лидера выглядели еще более радостными. Ким Чен Ын, прощаясь с Муну,

буквально затисну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репко обняв его три раз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Мун Чжэ Ин в личном послании к нации, которое транслировало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о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телевидению, рассказал об итогах саммит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коротко, то главный итог следующий: Ким заявил,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готов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о хочет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КНДР довела, что по-прежнему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роведении саммита с США. Среди других важных итогов - намерение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после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поднять вопрос о формаль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решение Юга и Севера провести 1 июня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которые до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 КНДР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отказалась проводить, хотя ранее сама их же и предлагала.

Судя по поступающим из Вашингтона сигналам,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сле свое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письма уже успел передумать, а посреднические усилия Мун Чжэ Ина не остал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Трамп в характерном для себя стиле "твиттер-дипломатии" заявил, что он рад новому подходу КНДР, переговоры с Пхеньяном по поводу саммита возобновлены, а сама встреча вполне может пройти, как и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Более того, Трамп дал понять, что возможно встреча с Кимом продлится даже больше, чем один день.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Сингапур уже прибыла передовая группа из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которая занялась согласованием технических и протокольных детале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ммита.

Учитывая склонность как Трампа, так и Ким Чен Ына к экспромтам,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час все изменится с точностью до наоборот, но пока все идет к тому, что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ми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видит историческую встречу лидеров КНДР и США. При этом немалая заслуга в этом будет на счету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выступает в роли супергероя, успевающего стремительно мотаться между США, КНДР и своей страной, лично устраняя проблемы на пути саммита Ким Че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уристы стали тратить больше денег за границей, а иностранные – в Корее

Расход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побили рекорд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е людей выезжало за границу в связи с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статистика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В первые три месяца этого года за границу выезжали 7,43 миллиона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 14,1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что стало новым рекордом, сказали в Банке Кореи.

Период совпал со студенческими каникулами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поездка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потратили US\$8,5 миллиарда, на \$1,12 миллиарда больше, чем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ледняя цифра побилла прежний рекорд в \$8,21 миллиарда, поставленный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есячный рекорд был поставлен в январе с расходами в \$3,24 миллиарда.

Окрепш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валют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росту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ок, особенно в относительно близкие страны, такие как Япония, Тайвань и Вьетнам.

Между тем, расходы иностранных визитеров в Южной Ко-

рее составили \$3,63 миллиард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340 миллион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шествовавшим кварталом. В марте иностранцы истратили в стране \$1,4 миллиарда, самую крупную сумму с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За первые три месяца этого года Южную Корею посетили 3,36 миллиона иностранцев, на 9,1 процента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о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упало на 30,5 процента, но японски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стало на 2,5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ИА РУСКОР)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и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в Инд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ключил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индийским штатом Ассам.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н 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Расположенные за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друг от друга регионы двух стран будут выстраивать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оциаль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В част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торговля и инвестиции, образование, наука, технологии и иннова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квакультура, переработк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а, угледобыча,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туризм, спорт и молодежная политика.

- Подпис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оздает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индийским штатом Ассам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Сейчас мы обсуждаем с нашими зарубежными коллегами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их в област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Южная»,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в деревообработку, угледобычу,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туризм,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принявшая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одписания документа. -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лини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сегда помогает партнерам укрепить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что ведет к установлению долгоср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же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жировок в Инди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студентов. Основные расходы на себя готова взять принимающая сторона.

Подпис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на трехлетний период, после чего буд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родлеваться.

Напомн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Индии развивается с 2000-х годов. Во многом оно связано с интересом соседн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му комплекс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нд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ONGC Videsh Limited» входи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сорциум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с долей 20 процентов. По итогам 2017 года организация перечислила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более 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м форуме отметили прорывное улучше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днялся сразу на 42 пунк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инвест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субъектов, переместившись с 79 на 37 мес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авляется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 основе оценок бизнеса и экспертов. Критерии - уровен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ов,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в расчет берется длительность процедур по подключению предприятий к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выдач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Также оценивается уровень различных услуг и сервисов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остоя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дорог, коммуникаций, наличие технопарков и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кадров для нужд экономики.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отмечают в федеральном ведомстве, регион проделал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план «быстрых побед».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была упрощена форма бизнес-плана. В режиме открытого и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власти начали обсуждать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Ежемесячно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деловых людей проводя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советы, организуются площадки «Бизнес и власть - откровенный разговор». Снизить излишне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могают органы прокуратуры.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в регионе стали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лучателя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 от микрозаймов до приобретения техники в лизинг. Улучшено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бизнеса об инструментах помощи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Репчатый лук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ешевеет благодаря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выращивания

Резидент ТОР «Южная» -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 осваивает японскую технологию в выращивании лука. Метод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выбран не случайно. В Японии также скоротечен теплый сезон.

- Ещё год назад репчатый лук сажали при помощи машины для посадки капусты. Старый агрегат сами адаптировали под особенности лука, однако работа требовала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челове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Долго искали 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й метод выращивания и нашли его у японцев. Протестировали их семенной материал, обкатали технологию в небольшом объеме и получили отличный результат.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с япон-

ской компаний, приобре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 посеву семян, высадке рассады в поле и линию по промывке касет после высадки. Это современное,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е, экономичное, мобильное и компакт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вхоза «Тепличный» Виктор Бутков.

Управляет техникой тракторист-механизатор Павел Федотов, за три дня он полностью освоил японскую новинку.

- Изначально сомневался, как можно справиться одному человеку, управлять техникой и тут же заряжать рассадопосадочную машину касетам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все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в управлении это тот же трактор, только маленький и легкий. Раньше на посадке лука работало пять-шесть человек, теперь справляюсь один, - делится Павел Федотов.

Преимущество япон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выращивания лука в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рассады без расширения тепличных площадей. Новая линия позволяет улучшить точность посева. Повышается скорость посадки и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Ес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 одного гектара аграрии собирали около 150 тысяч тонн репчатого лука, т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ка в два раза выше. Пользу от нововведения в будущем смогут ощутить на себе и покупатели репчатого лука, ведь за счет экономии на тепличных площадях и горюче-смазочных материалах упадет и себестоимость продукта.

В этом году резидент ТОР «Южная»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поставил точку в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о проекта - открыл четвертую очередь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ла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Комплекс заменил 6 гектаров старых, построенных более 40 лет назад теплиц.

В целом,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отрасль регио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получила мощн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я. Благодаря вводу новых тепличных площадей за год на 25%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уже не нуждаются в завозном картофеле и овощах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достаточно продукции, выращенной на Сахалин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освещение» даст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оснащению школ Сахалина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Это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пунктов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которо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но такж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оведени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педагогов курсов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семинар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форумов, широкое применение новейших методик обучен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крупнейше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заним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ыпуском учеб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о 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многими регионами страны, реализуя та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Опы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 «Просвещени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ожился еще в 2016 году. Тогда на острове начал работать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работу отрасли.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вый регион, где мы провели пол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феры и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уч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Просвещение» Владимир Узун. - Сегодняшнее соглашение мотивирует нас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этой важнейшей отрасли. Следующий шаг - создание круп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и сети эффективных школ.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Сахалин и в будущем сохранит передовые позиции, активно внедряя лучш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актики.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освещение» уже оказало сахалинцам мощ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вопросах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учителей, применении новых стандар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Власти надеются, что такой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едстоит построить 13 новых школ. Все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оснащены самым лучшим и перед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может выполнить эту ответственную задачу, дав цен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Весна - 2018»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ая в этом году масштабная област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многообразие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Свои товары покупателям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двухсот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з дев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Бойкая торговля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азвернулась с девяти утра минувшей субботы. Несмотря на дождливую погоду, сотни людей спешили за покупками. Ассортимент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товаров в этом году 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 - молоко, мясо, овощи, полуфабрикаты, рыба, разносолы,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 все по цен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Ярмарка - всегд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ак для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так и для жителей небольших поселков продать свою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ю, 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 приобрести ее по ценам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Местная продукци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д бренд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она все более узнаваема жителями и гостями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а ярмарке есть новички - мясопереработчики и хлебопеки. Ежегодно их количество растет. Это итог кропотливой работы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бизнеса и в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оказывается существенная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мал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снащени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 Кроме того, для подобной выездной торговли предприятия использую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транспорт, оснащенный холодиль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итринами. Такие машины приобретаются также за счет субсидий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ущественное отличие этой ярмарки в том, что теперь покупки можно совершать не только за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но и при помощи платежных карт.

Высокий спрос у гостей ярмарки вызвала продукция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Помимо охлажденного мяса курицы, производств которого возроди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год назад, нарасхват были ветчина, пикантный рулет, куриные колбаски и тефтели.

- Я часто покупаю бройлеров от «Островной», вкусное, нежное мясо, моей семье нравится. А сегодня решила купить куриные деликатесы. Здорово, что перед покупкой я все смогла попробовать на дегустации. Все очень вкусно,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Долинска Марина Журавлева.

Длинные очереди выстраивались у прилавков с замороженной рыбой. Привлекла покупателей доступная цена.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килограмма - около 99 рублей.

-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мороженную рыбу выгоднее всего покупать именно зде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Якутии, к примеру, она стоит выше 230 рублей. Отличаетс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 ценами на куриные яйца. Сахалинцы в среднем платят от 57 рублей за десяток.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На Чукотке, например, десяток яиц стоит 225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Кроме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хозяйств свои товары на ярмарку привезли садоводы-любители, огородники и владельцы частных подворий.

-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ассортимент товаров на ярмарочных прилавках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Все самое свежее, натуральное и полезное. Все это результат планомерной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нам удалось на треть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и мяса. На четверть выросло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за счет введения новых теплиц. Сегодня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и на рынках области идет планомерное замещение завозимой проду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Сахалин создает перву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лощадку для развития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снимать большое кино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визуальных эффектов в рамка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кластера. Развивать творческую отрасль на острове будет известная компания «Киноданц», которая помимо выпуска кинокартин сегодня производит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до 10 процентов всей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и.

Соглашение о партнерстве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а также с куратором проекта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заключил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на Петербург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 Сегодня наша компания стремится выйти на азиатские рынки.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ым для нас является партнерство с Китаем,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Поэтому размещение творческой площад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аничащей с этими странами,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здесь кинопроектов -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обы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иноданц» Евгений Мелентьев.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отметили, что у Сахалина есть своя самобытная история, связанная с японским периодом. И, конечно,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уникальная природа. Поэтому создание в регионе собственн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при участии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кинокомпаний является логичным шагом,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не только снимать у нас картины, но и организовать хорошую школу для начинающих режиссеров, операторов и сценаристов.

- Думаю, создаваемый на Сахалине креативный кластер станет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не только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о и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а гостей из-за рубежа. Несомненно, это прорывной проект, создание новой точки роста на карте страны,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а Светлана Чупш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Для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лучши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мировые практик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ожидается, начне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о первых картин. Сейчас «Киноданц» работает над созданием 7 кинолент. Одна или две из них будут сниматься в регионе, отм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 А в островных вузах планируется внедр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индустрии ки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министер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올해는 하바롭스크 160주년 기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티모페예와 크세니아라고 합니다.

태평양국립대학교 사회정치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대학에 다니며 전공은 관광학과이고, 2학년생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1주일에 1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외에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뷰티(Beauty)"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아주 흥미롭지만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튼튼한 몸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고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제 고향은 하바롭스크이고, 도시가 마음에 들어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5월 31일은 '도시기념날'입니다. 올해 하바롭스크는 160주년을 기념할 겁니다. 저의 장래 전공과 관련된 관광객들을 위한 구경할 만한 장소가 어디인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엔 '관광객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맨 나중에는 '관광객들의 숙소는 어디일까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자연이 풍성한 거리, 아무르강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하바롭스크 도시의 특징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힘으로 만든 하바롭스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하바롭스크에는 광장 및 가로수가 많고, 극장과 박물관이 있는 도시이고, 예술가, 작가, 시인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심지역에 위치한 하바롭스크 '레닌 광장'에서는 도시의 중요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레닌 광장은 처음에는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니콜라이 광장'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이 광장에는 도시의 주요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부, 러시아 공무원 및 인민경리 아카데미, 의과 대학교, 호텔, 은행지점, 병원, 가게 등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바롭스크의 중앙에 위치한 주요 거리는 '무라비요브-아무르스키 거

리'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의 주요 거리인 '무라비요브-아무르스키' 거리는 동방 시베리아의 첫 주지사인 '무라비요브-아무르스키'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1848년부터 1861년까지 이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로 정한 '에로페이 하바롭'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하바롭스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바롭스크의 중심지에 있는 큰 아름다운 공원은 '지나모' 공원입니다. 도시 중심지의 숲에는 가까이에서 쉴 수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같은 연못이 있습니다. 하바롭스크에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연못입니다. 연못이 도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연못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광욕과 수영은 금지됩니다. <플라티눔-아레나>는 다기능 관람스포츠단지이고 여러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2000년에 진행된 경연으로 러시아의 스포츠계에서 <플라티눔-아레나>는 '가장 좋은 스포츠 건축물'이라고 러시아 상공회의소로부터 인정받고, '2003년 우수 스포츠 건축물' 인증서를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예.프리마코브 회장으로로부터 받았습니

<라 비타 크림 카페(La vita cream cafe)> 음식점은 기차역 근처에 있는 팬잡은 카페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빵과 케이크 그리고 차와 커피, 주스 등의 음료가 제공됩니다. 내부에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와 좋은 음악으로 손님들을 마중해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레스토랑 <아무르>는 고급 요리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양식과 러시아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매우 고급스럽고 직원들의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성공 비결은 바로 편안한 분위기와 제공되는 요리들의 높은 품질입니다. 하바롭스크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우수한 호텔을 들자면 <빠루스> 호텔이 당연 으뜸입니다. 가격이 높지만 주위 경관 또한 사진에서 보듯 최고이며, 모스크바에서 VIP가 오면 이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티모페예와 크세니아, 태평양국립대학교 2학년생, 2018년 5월)



Смены

- 1 смена: 30.06 - 06.07
- 2 смена: 07.07 - 13.07
- 3 смена: 14.07 - 20.07
- 4 смена: 21.07 - 27.07
- 5 смена: 28.07 - 03.08
- 6 смена: 04.08 - 10.08
- 7 смена: 11.08 - 17.08

ВОЗРАСТ ДЕТЕЙ: 12-18 ЛЕТ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www.pusan-leto.com
pusan.let@gmail.com
тел.: +82 10 6312 8191
тел.: +82 10 5964 0584

Развлечения

море и пляж Хеундэ, обзор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Пусану и сити-квест по культурной деревне Камчхон, аквапарк и музей науки,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и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К-POP марафон, викторины и дискотеки

Обучени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ИСАА при МГУ,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этикету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мастерские по националь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SIGMADE ART STUDIO

러시안 주니어 어학원

[우리말로 깨닫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세상을 살면서 즐거운 일도 많지만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논리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때 쓰는 우리말 표현이 <말이 되다>입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참 말이 안 되네!>, <그게 말이 되냐?>, <어, 말 되네!>와 같은 표현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씁니다. 말을 하는 데 '말이 되네, 안 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말인데 당연히 말이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안 되는 세상도 있고,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보기가 있을까요? 나쁜 사람이 천당을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말이 되나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세상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과 공감대가 있는 거죠. 권선징악(勸善懲惡)은 강요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나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을까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간 아닌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마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소중한 특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구절은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 말씀이나 태초부터 있지는 않았겠죠. 말씀은 진리이기도 하고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말이지만 우리는 늘 말의 한계도 느끼고 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미안할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뚝뚝 눈물을 떨궈 뿐이지요. 커다란 슬픔과 기쁨은 우리 표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말을 잃기도 하고, 말문을 닫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때가 바로 감정만으로 소통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말은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여야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말씀이나 진리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우리의 감정이 보여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이 되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냥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기준이고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에는 말 되는 말과 말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도 말이 되는 일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장애가 있다고 천시하고, 약한 이를 괴롭히는 세상이 도대체 말이 되는 세상인가요?

(다음호에 계속)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Смертельные исходы насел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связи с несчастными случаями, отравлениями и травмами составляют — 32,9% (2016 — 28,5%), из них транспортными травмами — 4,9%, убийствами — 2,1%, причины смерти, обусловленные алкоголем — 8,1%, самоубийства 1,9%.

На втором — болезни систем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 19,4% (2016 году — 28,6%).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болезни от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14,3%, в сравнении с 2016 годом — 13,1%.

Смертность от болезней органов пищеварения занимает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Доля умерших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составила 14%, в 2016 году — 13,2%,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Сахалин 이동 영화관 코르사코브로 향한다

유일무이한 сахалин 이동 영화관이 4일간 코르사코브를 찾아간다. 항구도시에서 이동 영화관은 6월 9일부터 12까지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상영은 아침에 시작되어 저녁 22:00시에 종료된다.

코르사코브에 있는 며칠간 이동 영화관에서는 2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 목록에는 "사드코" 동화 애니메이션부터 "귀신 이야기" 공포영화까지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다.

항구도시 시민들이 관람할 만한 영화들 중에는 <슈라기 공원-2> 현재 공룡들에 대한 영화 시리즈의 후속편과 올해 5월 31일에 개봉된 "내 인생" 스포츠 영화를 코르사코프시민들은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오락영화연합회'의 마리아 프롤러바 홍보실장은 "코르사코브는 우리가 처음 가는 것이 아니다. 갈 때마다 영화관에는 관객들로 가득 차는데 이번에도 관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동 영화관은 시청앞 광장 한가운데 배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동 영화관은 이미 포로나이스크·홉스크·마카로브·스미르니호 구역 등지를 다니며 상영했었다.

сахалин 이동 영화관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 유일한 이동 영화관이다. 이동 영화관은 сахалин주의 특별 주문으로 제작되어 길이 13.6미터, 너비 2.3미터 크기의 트레일러이다. 여기에는 관객들을 위한 67석의 안락한 좌석도 갖춰 있으며 '아시아 시네마'의 전문가들이 트레일러 제작을 감독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киномобиль поедет в Корсаков

Уникаль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киномобиль отправится в Корсаков на четыре дня.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он пробудет с 9 по 12 июня. Сеансы будут стартовать утром и заканчиваться вечерним показом около 22:00.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 Корсакове киномобиль проведет 23 сеанса. В программе - почти все жанры: от сказок-мультфильмов вроде «Садко» до фильма ужасов «Истории призраков».

В числе прочих фильмов, которые увидят жител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ие культовой серии о динозаврах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Парк Юрского периода-2». Корсаковцы также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спортивную драму «Моя жизнь», которая выходит в прокат 31 мая этого года.

- Мы не впервые поедем в Корсаков. Каждый раз у нас полный зал.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такой же интерес публики и в этот раз. Киномобиль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города перед зда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ссказала менеджер по рекламе «Кинодосуг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Мария Фролова.

Передвижной кинотеатр уже успел побывать в Поронайске, Холмске, Макаровском и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ах и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ий киномобиль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в России передвижным кинотеатром.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пециально изготовленный для области полуприцеп длиной 13,6 метра и шириной 2,5 метра. Там могут комфортно разместиться 67 зрителей. Его изготовление куриров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з Asia Cinema.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